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Weekend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367-3000

제18068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8년 5월 24일 (음력 4월 20일) 토요일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4(土) 비 후 갬 16/24℃

25(日) 맑음 1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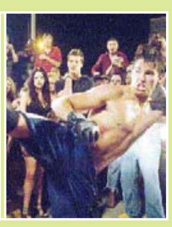
News

- 국제유가 폭등후 급락 ②
- '광주의 이태원' 하남동 ③
- 허정무호 '지옥의 4연전' ⑱

Books

- 고대세계 70가지 미스터리 ⑭

Entertainment



- 가요계 흥행코드 '피처링' ⑧
- 종합격투기 영화 '겟썸' ⑨

Wellbeing

- 식품 탐구 - 엉겅퀴 ⑬

공공기관 직원 3분의1 줄인다

305곳 고강도 구조개혁 … 노동계 강력 반발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총 직원의 3분의 1 가까이를 감원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 개혁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는 공공기관의 방만·부실 경영이 극에 달해 집권 초기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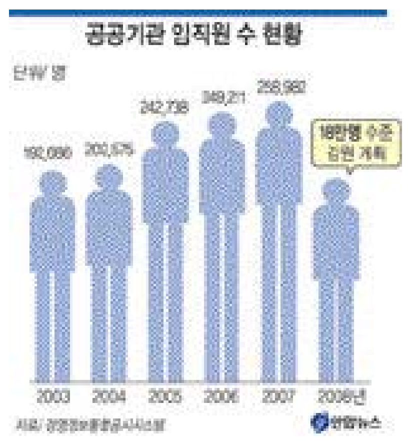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27-30일)을 마치고 귀국하는대로 공공기관 개혁안을 보고한 뒤 다음달초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MB 프랜들리' 노선을 내세우고 있는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에서 이에 강력 반발, 총력 투쟁 방침을 천명하는 등 대규모 춘투를 예고해 놓고 있어 시행까지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22일 한국전력 등 31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공기업이 복리 후생비 부당 지원 등 부적절한 집행액이 1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25만8천명이나 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18만명 선으로 대거 감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은 민영화와 자체 구조조정, 통·폐합, 청산 등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민영화 대상은 산업은행과 인천국제공



항공사 등 50여곳이며, 통폐합 대상도 50여곳에 이른다. 정부는 그러나 에너지·의료부문, 고속도로, 상수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관은 민영화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대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등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16개 기업의 지분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골프장 등 부동산을 대거 매각, 63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이를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와 민간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적극 펼칠 경우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이를 투입하고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설립 등에도 적극 활용된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지진대피 훈련 중국 쓰촨성 대지진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지진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후 열린 화순초등학교 주최 '지진 및 화재 대피훈련'에서 학생들이 재난 경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명품' 춘설차에 폭빠진 '하늘의 입맛'

10년째 機內食 납품

광주의 대표적 '명품'인 춘설차(春雪茶)가 10년째 '하늘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무등산 특산품인 춘설차는 지난 1998년 대한항공 기내식으로 주문 생산된 이래 10년간 꾸준히 납품되면서 '빛고을' 명품 브랜드로 명성을 지켜오고 있다.

현재 춘설차는 대한항공 국내선은 물론 국제선 전 노선에서 국내외 승객들에게 웰빙 음료로 제공됨으로써 광주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티백(teabag) 포장으로 항공기 승객들에게 제공되는 춘설차 브랜드는 '무등 명차 춘설'. 삼애다원(三愛茶園)이 생산하는 티백 춘설차는 한 달 평균 200박스(1박스당 1천200개 티백)가 대한항공에 납품되고 있으며 해외 여행 성수기에는 물량이 달릴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춘설차가 대한항공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1998년, 고(故) 조중훈 회장이 기내식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춘설차를 제공할 것을 회사 관계자에게 주문한 것이 계기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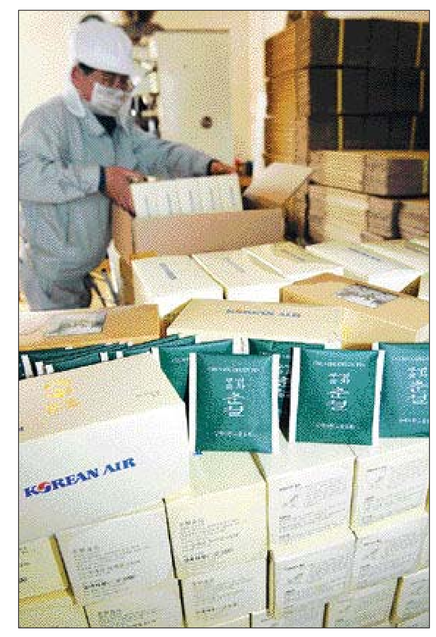
조 회장이 춘설차를 낙점한 것은 의재 허백련 선생이 무등산 자락에서 손수키운 춘설차에 대한 명성 때문이었다.

춘설차는 육당 최남선이 광복 후 의재 선생에게 차를 대접받고 그 풍미에 놀라 시조를 남겼을 정도로 맛과 향이 깊은 차로 널리 알려져 있다.

춘설차는 현재 '광주시 지역 특산품 1호'와 '전통식품 1호', '광주 동구 명품'으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 춘설차의 빼어난 맛은 무등산의 토양과 기후에서 우러난다. 춘설차는 무등산 자락 5만여평의 공간에서 청정 바람과 이슬을 먹고 자란다.

여기에 농약이나 화학비료, 퇴비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재배된다. 또 찻잎을 따내는 과정은 물론 완제품 포장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진다.

대한항공 기내식 납품 담당자는 "맛과 품질이 훨씬 뛰어나 승객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삼애다원에서 대한항공 기내 음료용 춘설차 포장작업이 한창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춘설차는 연간 생산량이 5t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값도 비쌀 뿐더러 시중에서 구하기도 쉽지 않다.

이 가운데 1.5t 가량은 대한항공에 공급되고 나머지는 전통차 전문점 등에 납품된다. 지난 2005년부터는 아시아나 항공 기내 음료로도 납품되고 있다.

허달재 삼애다원 대표는 "예향 광주를 대표하는 춘설차의 명성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정운천 농림 해임안 부결

17대 국회 한미 FTA 처리 않고 회기 마감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이 안돼 17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부결됐다. 〈관련기사 2면〉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으나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응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17대 국회는 사실상 마감됐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18대 국회에서 새로운 절차를 밟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부결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실시된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의원(291명)의 과반수인 149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나,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인 146표에 6표 부족한 140표에 그쳤다. 반대는 5표, 기권과 무효 각 2표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